

# 김현미 장관, “고속도로 휴게소 방역강화 만전” 강조

## - 29일 안성휴게소 찾아 추석 명절 대비 방역실태 현장점검총력 당부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(화) 안성휴게소(부산방향)를 찾아 추석 연휴 기간 시행되는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 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이 날, 김 장관은 도로공사로부터 휴게소 방역 강화를 위해 이용객 출입 관리를 위한 안내요원 배치, 포장음식만 허용 등 방역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,
  - “정부는 이번 추석이 코로나-19의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”고 강조하면서, “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동 자제를 위해 추석기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,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도 시행하는 등 정부도 총력 대응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이 날, 김 장관은 발열 체크 및 출입 명부 작성을 하면서, “휴게소 이용객들 모두가 발열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 이후 휴게소에 입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할 필요”가 있다고 강조하였다.
  - 이어, 음식점, 커피숍, 화장실 등 방역 조치 현장을 점검하고 “휴게소에 많은 이용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, 경각심을 갖고 방역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점검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  - 아울러, “우리 국민들의 고향 가시는 길, 방역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”드린다면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
2020. 9. 29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《 출발 전 》

- 물과 간식 등을 충분히 준비
- 어느 노선·휴게소를 이용할지 사전에 검토
- 도로 전광표지(VMS), 혼잡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휴게소 혼잡정보 체크

휴게소 이용은 짧게  
마스크 착용은 필수

□□휴게소 혼잡  
다음 □□휴게소 이용

도로변 VMS 표출



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

《 휴게소 이용시 》

- 혼잡 시간대 휴게소 이용을 피하고, 혼잡시 다음 휴게소 이용
-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(수기, QR, 간편전화 체크인 등)
- 실내 취식이 금지되므로, 포장된 음식을 투명 가림판이 설치된 야외 테이블 또는 차량 내에서 섭취
- 편의점 등에서는 현금보다는 비접촉 결제방식 이용
- 화장실 거리두기 준수 및 임시화장실 이용으로 혼잡 최소화



출입명부 작성 · 관리



출입구 동선분리 및 거리두기